

소재 다변화, 고단한 삶 담은 작품 많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완료

김인숙·이대흠·배다인 심사위원 참여
시 1237편·소설 153편 등 1518편 응모
역사·요리 등 사회 트렌드 맞물린 소재도

1인가구가 증가하고 삶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이 같은 변화를 형상화한 작품도 늘고 있다.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2020 광주일보신춘문예 심사가 완료됐다. 이번 심사는 19일 광주일보 편집국 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인숙 소설가, 이대흠 시인, 배다인 동화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 응모작은 시 1237편, 소설 153편, 동화 128편 등 1518편으로 예년 수준의 응모 현황을 보였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피폐한 현실, 고단한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소설에서는 죽음, 다문화, 이색 직업, 소통 부재 등 다양한 양상을 그린 작품이 많았다. 가족을 다루거나 애완동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 등도 눈에 띄었다. 또한 역사, 요리 등과 같은 작금의 사회 트렌드와 맞물리는 소재들도 적지 않아 문정들이 삶의 현실을 그들만의 예리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문정들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비작가들이 응모를 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투고한 이들이 있어 신춘문예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포박포박 원고지에 친필로 작품을 보내온 원고에서는 문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느껴졌다. 마감 직전 편집국까지 찾아와 원고를 접수한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19일 광주 동구 금남로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대흠 시인, 김인숙 소설가, 배다인 동화작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투고자도 있었으며 한 장르에 다수의 작품을 보낸 이도 있었다. 소설 부문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소설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객관적인 미학적 율림과 독자의 공감과는 별개의 문제다. 김인숙 소설가는 "삶에 밀착된 소재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나름의 연구를 토대로 삶과 연계해 풀어가는 성실성은 돋보였다"면서도 "문학적으로 잘 완결된 작품은 의외로 적어 흥미롭게 읽다가 아쉽게 끝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부문에서는 고단한 현실에 대한 공통적인 소재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를 미학적 율림으로 승화한 작품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대흠 시인은 "예전에는 시적 발랄과 풍속을 그리는 작품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신선한 발상을 토대로 한 시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에 비해 시적 탄탄함은 미흡해 보인다"고 평했다. 예심에 참여한 진혜진 시인 또한 "투고작은 대부

분 삶의 주제를 토대로 한 작품이 많았다. 지배적인 정황을 이끌어가는 힘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율림이 있는 작품을 눈여겨보았다"고 덧붙였다. 동화 부문 또한 일상적이며 환상적인 소재의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다. 사물 그 가운데서 휴대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많았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친근한 사물로 각인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다인 동화작가는 "바다, 생물, 노인문제, 인구감소, 우주에 이르기까지 소재는 다채로웠지만 감상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완결성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독자에게 읽히는 문학은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특질을 지닌다. 고통과 서정은 분명 진부함과 다르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심미적 가수성과 이를 담아내는 완결성을 갖추지 않고는 율림을 줄 수 없다. 한편 당선작은 2020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발레와 오페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7일 강진아트홀 콘서트

연말을 맞아 발레와 오페라를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발레 인 콘서트'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가 직접 해설을 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상임지휘자 정치용이 마이크를 잡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시즌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작품 중 인기 아리아 및 발레모음곡을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발레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백조의 호수' 중 '제1곡 정경', '네 마

리 백조의 춤', '왈츠 No.2'와 '호두까기인형' 중 '러시아의 춤', '중국인의 춤', '갈릴피리의 춤', '꽃의 왈츠'가 연주된다.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사랑의 괴로움을 그대는 아는가', 오페라 '돈 조반니' 중 '마님, 주인님이 사랑한 여인을 목욕이라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이 관객과 만난다. 또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도 무대에 오른다. 메조소프라노 백재은과 베이스바리톤 우경석이 협연자로 등장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됐으며 2000년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지정, 교향악, 국립예술단체와의 연주, 예술의전당 기획 연주 등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전남대 출판문화원 발간 2종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디지털 저널리즘을 다각도로 연구한 책과 버지니아 울프의 문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룬 책이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전남대 신방과 김군수 교수가 번역한 '디지털 저널리즘 연구 톨아보기', 이주리 영문과 교수와 김부성 서강대 영문과 대우교수의 공저 '틈새비평'이 그것. 두 책 모두 전남대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했다. 먼저 '디지털 저널리즘 연구 톨아보기'는 당대 디지털 저널리즘 연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비판적 담론 분석, 역사기독교학 등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이 담겨 있다. 영국소설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버지니아 울프를

주제로 한 '틈새비평'은 독자들에게 울프의 문학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 한편 전남대출판문화원은 세종도서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모두 11종의 출간도서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올해는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4종을 포함해 모두 6종의 도서가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로 뽑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판소리로 듣는 동화 안데르센 이야기

진도국립남도국악원 '판소리 동화시리즈'
입과손스튜디오 초청 20일 공연



입과손스튜디오.

진도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입과손스튜디오 초청 '판소리 동화시리즈-안데르센'을 선보인다. 20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입과손스튜디오는 판소리 창작 작업을 이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작업공동체로 판소리가 갖

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의 연구를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른 동화작품에 비해 공간과 인물이 구체적이고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사

실적 묘사가 많은 아름다운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국악을 만나 더 생생한 이야기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악기와 함께 판소리, 민요, 아카펠라, 왈츠, 썸바 등 다양한 음악이 관객과 만난다. 공연에는 소리꾼 이승희·신승태·김소진, 고수 김홍식·이항하 등이 출연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진악당 1층 로비에서 좌석 번호가 적힌 티켓을 발급하며 공연장 입장 시 티켓을 확인 받은 후 지정된 좌석에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본 공연은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삼일시사거리에서 무료 셔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5개 단체 참여 광주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 성료

지난 1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제12회 문화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간사기관 광주문화재단)가 성료됐다. 광주지역 주요 문화기관 15곳으로 구성된 광주문화기관협의회는 이번 대표자회의를 통해 올해 협의회가 추진했던 공동사업과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2020년도 새로운 공동·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협의회 공동사업 8건과 기관 간 협력사업 7건을 추진했다. 협의회는 공동·협력사업이 확대되면서 협력 체계가 활발하게 구동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광주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의 정보를 수록한 '광주 문화기관 디렉토리북' 발간을 비롯해 지난해보다 협력의 고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 문화기관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공동사업은 '광주문화공간지도 제작', '2020 광주비엔날레 야외특별공연', '문화기관협의회 미디어 직무교육', '지역 공공 문화예술기관·민간예술단체 상생 협력 정책세미나',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등이다. 공동사업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가 협의회가 이루어진 후, 내년도 상반기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추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